

해외 한국어 교육자 위한 전통문화연수

전주시, 19개국 30명 재외동포 대상 26일까지 전통문화체험·문화시설 탐방 등 프로그램 운영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에 힘쓰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등 19개국 30명의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의 교육자 프로그램 입교식을 가졌다.

이날부터 이달 26일까지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화를 가르치는 방법 특강 △사물놀이, 한삼춤, 부채춤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한옥마을, 경기전, 전라감영 등 문화시설 탐방 등 다양하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전통문화연수는 전주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아동·청소년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자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들의 전주 방문을 환영한다"며 "천년 역사의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배워, 해외에서 전주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통해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등 19개국 30명의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의 교육자 프로그램 입교식을 가졌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으로 한여름 물소풍 떠나요”

시, 23일 다양한 볼거리·즐거거리·살거리 있는 '야호장터' 개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생긴다.

전주시는 오는 23일 노송광장에서 나눔과 소통의 생활문화마당이자 벼룩시장, 프리마켓, 장터 등을 아우르는 시민장터인 '제3회 야호장터'를 연다.

이번 야호장터는 어린이 등 가족단위 시민들의 무더위를 씻어주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한여름 물소풍과 재미난 놀이장'을 주제로 물놀이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물놀이뿐만 아니라 놀거리와 볼거리, 살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장터가 열리는 노송광장 한 가운데 바다분수에서는 전문MC가 진행하는 물놀이 이벤트가 펼쳐지고, 장터 곳곳에서 벼룩쇼와 어린이 댄스팀 공연,

풍선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터에서는 초상화 그려주기 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도 있으며, 아크릴 무드등과 팔찌 등 다양한 수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날 장터에서는 12개 팀이 참여해 수공예품과 생활소품, 디지털·음료 먹거리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이들 12개 팀은 장터 수익금 일부를 전주시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안명숙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3회 야호장터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청 앞 노송광장을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장터와 함께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오는 23일 노송광장에서 나눔과 소통의 생활문화마당이자 벼룩시장, 프리마켓, 장터 등을 아우르는 시민장터인 '제3회 야호장터'를 연다.

‘돌아보면 내 옆에 행복’ 마음치유 프로그램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8월 8일~9월 중순까지 운영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일상생활 속에서 심신이 지친 전주 시민들에게 마음치유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다음 달 8일부터 9월 중순까지 각각 4주간 7기와 8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돌아보면 내 옆에 행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한 무력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송년1동·혁신동·공암1동·삼전3동·평화1동·중화1동 등 6개 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

한 달 동안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친 일상으로부터 위로와 힐링을 받고 건강한 일상회복을 돕

기 위한 원예치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지는 주민센터 별로 프로그램 진행 일자와 시간을 확인한 후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blog.naver.com/mindhealingcenter) 또는 전화(063-281-8576)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덕진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는 7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8월 8일부터 4주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경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마음을 잇는 대화' △코로나19로 인한 무력감을 극복하고 일상 속 행복을 찾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돌아보면 내 옆에, 행복'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내 마음 속에 힐링이 피어나라(아인)' △내면의 성장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제보다 나은 오늘' △마음이 궁핍한 2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내면의 질문이 이끄는 대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8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2일부터 4주간 △마음챙김이 필요한 20~30대 대상 '평범한 아침을 온전한 힘으로' △자신을 알아보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만 먹으면' △코로나 우울로 심신회복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서(아인)' △마음을 향기로 채우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향기를 담은 나' △나의 색을 찾고 싶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책다른 나의 일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과 함께 한 30년, 공감을 넘어 성장으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원 30년 기념책자 발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센터가 걸어온 30년의 길과 성과를 숫자로 정리한 기념책자 '청소년과 함께 한 30년, 공감을 넘어 성장으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책자에는 △30년간 추진했던 상담 및 사업 운영현황 등의 성과를 숫자로 정리한 '숫자로 본 센터 30년의 성과' △30년의 역사를 시대별로 나열한 '30년의 길' △30년의 성과와 비전을 총 정리한 '30년 총서' △각 계층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센터와 함께한 30년' △'센터 비전과 핵심가치'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30년의 길'의 경우 △1992~1995 [출발], 청소년 전문 상담실, 그 첫 문을 열다 △1996~2000 [진전], 상담을 넘어 청소년 운동으로 △2001~2014 [변화],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 청소년을 품다 △2015~2018 [도약], 청소년의 생명을 살리는 최상의 상담복지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2019~2022 [성장],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센터를 꿈꾸다 등 연도별 키워드로 정리했다.

‘숫자로 본 30년의 성과’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29만4927건의 상담과 69만5403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이 들어 있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안정망 사업으로 6593명의 위기청소년들에게 3만9502건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으로 1381명의 중·고위기 청소년들에게 1만 3829건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4713건의 상담 및 치료지원을 제공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2만6805건의 학업부기·사회진입·교육지원·취업지원·자립지원·건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지난 5월 26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1388 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위원,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주시청소년안정망 활성화 보고대회 및 개원 30주년 기념 특강'을 개최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올해는 센터 위탁 개원 30주년의 해로 청소년안정망 활성화 보고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기념책자까지 발간하게 되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다"면서 "30세 청년으로 성장한 센터가 사명감, 전문성, 성장, 연대라는 핵심가치를 세우고, 지속가능한 센터라는 새 비전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간의 재발견’ 빌딩숲 영화제

전주시, 8월 매주 수요일 사회혁신전주서 무료 영화 상영

빌딩숲 도심 한복판에서 성장과 일을 주제로 한 무료 영화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8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전주 1층 커뮤니티라운지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영화 상영은 사회혁신전주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간의 재발견-빌딩숲 영화제'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영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간에 머무는 경험을 제공하고 소통과 협력의 공간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빌딩숲 영화제에서는 성장과 일을 주제로 일상에서의 성장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매주 한 편씩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 일정은 △8월 3일 소공녀 △8월 10일 리틀포레스트 △8월 17일 미안해요, 리키 △8월 24일 로제타 순이다.

사회적기업 '무명씨네 협동조합'과 협업해 영화 상영 전 영화 선정 이유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영화관람 신청은 8월 19일까지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누리집(www.jic.or.kr)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사회

혁신센터 활동지원팀(070-4173-8977)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는 빌딩숲 영화제가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시에 사회혁신전주 시민들을 위한 소통협력의 공간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영화 상영을 통해 누구나 사회혁신전주에 방문하여 사회혁신센터가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보여주고, 공간 활용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미디어 역량 강화

전주시, '미디어를 통한 유튜브 스튜디오 활용 교육' 실시

전주시는 20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교육실에서 전주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관계자학교 시즌2 '미디어를 통한 유튜브 스튜디오 활용교육'을 실시했다.

평생학습 관계자학교는 평생교육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현장 업무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및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평생학습 발전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연수과정이다.

'미디어를 통한 유튜브 스튜디오 활용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강사로 나선 최성은 전주시미디어센터장이 △다양한 생동계 플랫폼과 시스템 기본이해 △라이브 방송 장비와 활용 이해 활용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온라인 생방송 송출 실습 등을 설명했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 달 3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포스트코로나 등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습 환경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교육에 집중해 관계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찾기 위해 이번 연수와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농기센터, 도시농업 시민열린강좌 개최

친환경 도시텃밭 가꾸기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3층 교육장에서 '제1회 도시농업 시민열린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강좌에는 흥영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박사가 △친환경 도시텃밭을 주제로 한 이론 수업 △미니화분에 상추심기 △생태텃밭 현장체험 등의 내용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 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nongup.jon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예정인원은 5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열린강좌를 통해 도시농업 교육으로 도시민들이 농사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도시농업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완산소방서, 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20일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인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소방점검 등 화재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방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영화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미개방된 출입구가 많아 대피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 이에 따라 화재안전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화상영관은 완산 관내 총 9곳으로 도내 가장 많으며 폐쇄된 곳에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대피시 상영관 출입구 한곳으로 많은 이들이 몰려 피난에 지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완산소방서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영화상영관 소방특별조사 △영화상영관 관계자 대상 화재안전 컨설팅 △피난시 대피유도 훈련 등을 추진한다.

김정수 서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영화관람객이 증가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영화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